

제 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6.(월)

재해 피해 농가 보상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재해 피해 농가 보상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

영동군 농민들은 지난 냉해피해로 생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급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올해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이 다시 한번 초토화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동군의 누적 피해현황은 피해농가 2,692가구, 피해면적 1539.6ha이며, 특히 양강면 양정리와 죽촌리 지역은 큰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영동군의 주요작물인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농가의 피해가 심각하였는데, 조사된 바에 의하면 생산량이 평년의 20%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번연도 수확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농가의 생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상제도가 있긴 하나, 농민들의 피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민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해,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인 자연재해가 반복되어 보험료는 상승하는데, 보장은 축소되고 있고, 피해산정 방식과, 할증률 부분에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피해 보상 산정시 사과와 경우 50% 또는 70%만 보장해주는 상품만 존재하여, 적과작업 이전에 발생한 천재지변임에도 불구하고 100%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상 대상 품목 또한 적어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농민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마련과 정책성 보험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료 할증률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은 후, 다음해 보험 가입시 할증률을 최대 50%까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함이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인데, 본인 과실이 없음에도 큰 할증료를 부담한다면 누가 재해보험에 가입하려 하겠습니까?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편하고, 가입률 증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각종 지원사항으로 복구비, 농약대 지원 등이 있는데, 예전과 비교하여 오른 수준이지만 여전히 단가가 너무 낮아 피해복구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농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재해 발생시 예비비를 마련하여 피해복구에 힘쓰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등의 상황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재해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다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동군의회는 재해보험 제도 개편과, 중앙부처, 지자체의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하나. 농업재해보험의 보상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 대상품목을 확대하라.

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할증률이 증가하는 농업재해보험의 할증제도를 개편하라.

하나.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지자체의 선제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6월 26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